금정산 마애불 앞 '불법 기도터' 철거

국립공원 승격 계기 대집행
가설물 · 쓰레기 수거로 정비
잔존 불상 · 바위 훼손 조각은
양산시와 협의해 순차 처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양산시와 협력해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발 700m 이상 고지대인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경남 유형문화유산) 일원과 미륵봉 일대 불법 기도터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 및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사진은 정화작업 현장 모습.
사진 제공=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부산과 경남의 명산 금정산이 지난 3월 3일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가운데, 수십 년간 험준한 고지대에 난립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훼손하던 불법 기도터와 무단 가설물들이 마침내 철거됐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양산시와 협력해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발 700m 이상 고지대인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경남 유형문화유산) 일원과 미륵봉 일대 불법 기도터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 및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구역은 수십 년 전부터 신원미상의 행위자들이 촛불함, 불전함은 물론 아궁이와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하며 무단 점유해 온 고질적인 훼손지였다.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산불 위험과 경관 훼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접근이 험준해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철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양산시는 공단 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67명의 인력과 국립공원 대형 헬기(KA-32T) 1대를 전격 투입했다. 7일간의 정비 끝에 가설 건축물 2동과 공작물, 생활 폐기물 등 총 65마대 분량(약 40톤)의 폐기물을 헬기로 일괄 산 아래 집하지로 수송해 냈다. 헬기 운항 시야 확보를 위해 벌목된 나무들은 국립공원 원칙에 따라 산림 내에 뉘어져 자연 분해되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폐기물은 덜어냈으나, 완전한 훼손지 복원과 흔적 지우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마애불로 내려가는 계단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닥의 시멘트를 깨고 최종 철거에 돌입한다.

미륵봉 일대 자연 동굴 주변에 사적으로 반입된 정체불명의 석조 불두와 관음보살상 등 공작물은 이번 철거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양산시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미륵봉 일대 바위 벽면에 누군가 임의로 새겨놓은 음양 문양과 한자 조각들은 향후 석공을 동원해 깎아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공단과 지자체는 어렵게 쾌적한 환경을 되찾은 만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된 두 곳에는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재했으며, 주 1회 도보 순찰과 드론 감시를 병행해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또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공고를 통해 부산광역시 관할(동래·금정·북구 등) 내 탐방로 청소와 불법·무질서 행위(취사, 흡연 등) 예방을 전담할 '2026년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18명을 신규 모집해 현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짤 계획이다.

송동주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불법 기도터 정비는 국립공원 지정에 걸맞은 품격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헬기를 활용한 고지대 정비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불교, 상생의 봉축 등불 밝히다

5월 16일 신뇨엔, 범어사 방문
양국 우의 다지고 연등회 참석



신뇨엔 대표단이 5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했다. 오색 연등이 장엄된 범어사 금강계단 앞에서 주지 정오 스님과 신뇨엔 방한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불교계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생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일본 신뇨엔(진여원) 대표단이 5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를 방문하고, 당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봉행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 불교 교류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방한 일정에는 신뇨엔 총본부 부교무장 기시다 가즈오를 비롯해 이이야마 아키히로, 나카무라 히로유키(사회교류부), 다니구치 하루히코(미디어부),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정사 부산지부장 영준 국원 등이 동참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일본에서 귀한 시간을 내 부산 연등회와 봉축 법회에 동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부처님의 법(法)이 전해진 불교 국가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행복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선물 교환도 이어졌다. 신뇨엔은 일본 전통 다식과 불교 서적 〈신죠-마음에 부처를 새기다〉를 정오 스님에게 증정했다. 정오 스님은 동산 스님의 가르침이 깃든 '감인대' 기념품으로 화답했다. 더불어 오는 7월 범어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사찰음식 행사'를 기념하고자, 김영택 작가가 1년간 도량에 머물며 직접 그린 특별 펜화 달력을 답례품으로 전달하며 범어사의 향후 행보를 알렸다.

대웅전 참배와 사찰 순례를 마친 신뇨엔 방문단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에 동참했다.

신뇨엔 총본부 기시다 가즈오 부교무장은 "천년고찰 범어사에 깃든 기운과 사부대중이 하나 된 연등회의 장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환희심을 나누는 뜻깊은 인연"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해경 경승실, 무사안전 기원

5월 20일 봉축법요식 봉행
영도구불교연합회 등 동참



부산해양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호법 스님)이 5월 20일 부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열고 해상 무사안전과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부산해경 경승실장이자 영도구불교연합회장인 호법 스님, 복천사 주지 혜진 스님, 대원사 주지 현여 스님, 호국관음사 주지 법산 스님 등 지역 스님이 참석했다. 아울러 오병목 정보외사과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자리했으며,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경승실장 호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오직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겨내신 위대한 승리자"라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야불교, 유식·인지심리로 마음 규명

6월 7일, 반야암서 학술대회
반야학술대상 후보자 공모도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불교 유식(唯識)과 현대 인지심리학을 접목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학술의 장을 연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인지심리학과 유식의 마음작용-변행, 별경, 선심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발표에서는 총 3편의 논문이 조명된다. 발표 주제는 △강형철(경희대) '유식학의 5변행과 인지심리학의 인지 기제 비교 연구'(논평 박재용) △김명우(불교학자) '유식 문헌에 나타난 별경심소 고찰'(논평 이정희) △이길산(경남대) '참(慙)과 괴(愧)는 어떻게 별체(別體)가 되었는가?'(논평 최성호) 등이다.

'제16회 반야학술대상' 수상 후보자도 공모한다. 접수 마감은 6월 15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anyaresearch.org)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녹색구매지원센터와 MOU



부산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는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센터장 박숙경)와 5월 21일 센터 내에서 '우리 동네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에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환경 복지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림사에 정부 및 지자체의 친환경 소비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도림사는 사찰 운영 및 각종 행사에서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저탄소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친환경적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특히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녹색 소비 교육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캠페인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내 녹색 소비 실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사서실장 석재현)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석문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동심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현법 사회복지원장 석청명
문화원장 석불산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성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비구니부원장 석우진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서정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혜덕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박재종(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안미옥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